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7일 (음력 3월 2일) 화요일

한국노총 전남본부, 김영록 후보 지지선언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16일 오후 2시 본부 의장단 및 집행부 회의에서 김영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16일 오후 2시 본부 의장단 및 집행부 회의에서 김영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김영록 후보야말로 준비된 도지사로서 전남지역 노동계 현안 해결과 전남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의지

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자와 농어민의 진정한 벗, 청년 실업률을 해소 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또 김 후보가 고용률 70% 확보, 청년 60세 보장, 전남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동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적시했다.

전남 발전 이끌 역량·일자리 창출 등 공약 실천 확신 경선 탈락 신정훈 예비후보도 김 후보 적극 돕기로 해

전남본부는 또한 김영록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전남지역의 민생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지사가 되기를 열원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전남본부는 이와 함께 "약속을 지키면서 불신의 시대에 신뢰가 무엇인가를 전남도 부지사와 농림부장관 때 전남도민들에게 몸 보여준 김영록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며 "김후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잘사는 전남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도 16일 김영록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날 "비록 당의 정체성을 놓고 그동안 김영록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기여하고,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사람이 전남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순리라 생각해 김영록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

다. 신 후보는 "이번 경선과 후보 선출이 위기의 전남 정치 혁신을 통해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확보와 호남정치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우리당의 후보가 승리하는데 다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단합을 호소했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동안 김영록 후보를 적극 도와서 전남 도정의 발전과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후보는 이날 오전 순천시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김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 지지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신 예비후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높은 식견과 공약 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전남발전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약속 했다. 이로써 1차 경선에서 1위를 한 김 후보의 대세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규 기자



한진家 3세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기케빈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 도미에 오르면서 조 전무의 남매 조원태 대한항공 시장과 조현아 칼호텔-케트코스 시장의 거인행도 입김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과의 회의(대한항공영국편 광고 캠페인 관련)에서 가진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무의 오빠 조원태 대한항공시장도 과거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2000년 6월 차선을 위반한 조 시장을 단속하려던 교통경찰을 치고 100미터가량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불갑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조 전무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대한항공의 국제기 지원 박탈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스1



나주혁신도시 올해 '송배전·원자력·발전 직종' 채용 가장 많아

광주상의 운영 광주인자위,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동향 보고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송배전·원자력·발전 분야 직종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올해부터 개정된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18%로 확대하면서 지역 출신 청년들의 '취업 문'도 더욱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인재개발위원회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완료 공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올해 2608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체 채용인원의 68.5%를 차지

하는 '1788명'을 뽑는다. 이는 지난해 채용인원 보다 212명(13.5%)이 늘어난 수치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권역별 지역전문사원 채용까지 더하면 올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채용목표제는 전향단체별 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18%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에서 '미이너스(?)점' 이내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추가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직종별 채용인원은 송배전·원자력·발전 직종 844명(47.3%), 사무 직종 281명(15.7%), 통신·정보통신(IT) 106명(5.9%) 순으로 나타났다. 한진KPS는 222명을 채용할 예정인 가

운데 기계 직종 채용인원이 106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전기 직종 89명(40.1%), 사무 직종 27명(12.2%) 순으로 채용 인원이 많았다. 한진KDN은 전체 채용인원 82명 가운데 74명(90.2%)을 통신·전산·정보보호 직종에서 채용한다. 한진·한진KPS·한진KDN 등 전력그룹사 채용규모는 총 2090명으로 전체 채용규모의 80.1%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280명을 채용할 계획인 가운데 토목·지질·환경 직종에서 134명(47.9%), 사무 직종 98명(35.0%), 전기·기계 직종 45명(16.0%) 등을 뽑을 예정이며, 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 나머지 6개 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89명, 한국인터넷진흥원 33명, 전력거래소 31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7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1명을 채용한

다. 광주인자위가 3년째 조사·발표 중인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동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인력 양성훈련 개발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에 대비해 기관별 직무수행 내용, 필요지식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광주상의와 광주인자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해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개발자 과정' 등 2개 과정을 조선대학교와 동강대학교를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미취업자 4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했다. 김경호 광주지역인재개발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방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올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NCS 직무 분석을 통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공급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20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

제20회
함평 2018.
4. 27. 금 ~ 5. 7. 월
함평엑스포공원, 함평천생태습지, 화양근린공원

나비대축제

Imagine your Korea

www.hampyeong.go.kr/tour/ 문의 : 061-320-1784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